

존경하는 남가주 충청향우회 선배님 여러분,

그리고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,

남가주 충청향우회 제 34 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.

그동안 향우회를 이끌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, 늘 변함없는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충청 향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충청은 의리와 신뢰, 따뜻한 정의 고장입니다.

남가주 충청향우회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아끼고 돋는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.

제 34 대 집행부는 소통하는 향우회, 함께하는 향우회를 목표로 세대와 지역을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또한 차세대들이 충청인의 뿌리와 자긍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.

향우회는 회장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입니다.

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남가주 충청향우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남가주 충청향우회 제 34 대 회장

이 은 속